

법회안내

정토사(02)883-5554
초하루기도
매월1일(음)
오전10시30분
보통기도 매
월19일(음) 오
전10시30분
...
주지 해륜스님

삼선포교원(02)322-9652
정기법회 매
주 화요일 오
전11시, 오후7
시30분
어린이법회
매주 토요일
...
주지 지광스님

여의도포교원(02)784-9136
인동기도 매월1-3일(음) 오전10시
30분
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(음) 오전10
시30분

직지사 서구포교원
(063)557-3599
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
자세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
산중기도 매월1-3일(음) 오전10시
30분
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(음) 오전10
시30분
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(음) 오전10
시30분

관음사(0391)43-2986
동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
강릉명주 거사암의 매일 셋째주 토
요일 오후5시
관음불교 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
오후7시
봉무리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
고분화생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
산중기도 매월1-3일(음) 오전10시

일지사(02)878-3653
지상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
말교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
어린이 한자교실 매주 토·일요일
오후3시

한성포교원(02)207-8286
산중기도 매월3일(음) 오전10시
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(음) 오전10시
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(음) 오전10시
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
사법회 매월 첫째·셋째주 토요일
오후6시

양양 낙산사(0396)672-2448
초하루법회 매월1일(음) 오전10시
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(음) 오전10시
...
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·단체
는 주지스님(대표) 사인과 함께 보
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.
전화(02-722-4162)
팩스(02-737-0698)

서울시내 아파트 사무실 등에 비밀
도박장을 치러놓고 관동 4백50억대의
상승도박판을 벌여 온 중산층 주부,
공무원, 중소기업가, 조직폭력배 등 도
박조직 10개파 2백2명이 8월 20일 검찰
에 적발됐다. 하루 뒤 기업인과 유명
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 40여명이 미국
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최근 1년여
동안 1천2백만달러(1백억원 이상)의
거액 도박판을 벌이고 회화를 불법 유
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
고 있다. 개인적인 파산은 물론 이혼등
가정파탄과 국가경제를 파멸로 이끄는
명목명 도박, 부처님은 도박하지 말라
고 5개째서 엄격하게 가르치셨다. 도박
이 왜 금지돼야 하는지 경전에서 알아
본다.
<편집자 주>

이렇게 들었다

도박 이겨도 저도 파멸에 이른다

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.
"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
이 있느니라.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
고,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
며, 재산이 줄어들고, 법정에서는 그 말에
무게가 없게 되며, 친구나 관청으로부터
업신여감을 당하고, 혼담에 지장이 있게
되느니라."
<선생지경>
재물에는 여덟가지 위태로움이 있어
손해를 입고 이익은 없으니, 그중 하나는
뜻밖의 재물이 도박하여 용도에 도가 없는
것이다.
<중본기경>

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
시기 좋아하고, 놀기를 좋아하며, 여자를
밝히고, 도박에 빠지고, 나쁜 친구를 사귀
고, 게을러 방탕함에 젖는 것이니라.
<아함경>
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
버는 쪽쪽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. 이것
은 파멸의 문이다.
<숫타니파타>
거사의 아들이, 여섯가지 집착이 있
기 때문에 재물을 없애고 악도에 들어가
나니, 여섯가지란 무엇인가? 첫째는 술을
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고, 둘째는 불시

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고,
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고, 넷째는 음
악을 지나치게 좋아함이고, 다섯째는 나
쁜 벗과 사귀고,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
우는 일이니라.
<선생지경>
무리하게 구하지 않고, 분수를 알아
만족할 줄 알며,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
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
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
을 바른 생활(正命)이라 한다.
<시제경>
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늘어나는
것도 큰 괴로움이다. 남의 빚을 지고서

갚지 못해 독촉받는 것도 괴로움이고, 빚
받을 사람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
괴로움이며, 빚을 갚지 못해 구속 당하는
것도 큰 괴로움이다.
<중아함경>
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
에,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. 물건이
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
생각을 일으켜,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
으키지 않으며, 심지어 그것이 풀일 때
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. 하
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
겠는가?
<화엄경>
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
취하고 흘러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
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,
그들은 나쁜 악마에 의해 지독한 괴로움
의 고통을 받으리라.
<집아함 비리경>



4일 생계사 육조정삼탑전(일명 금당)에서 6조 혜능스님 1284주기 다례식
이 봉행된다.

육조스님 1284주기 다례식

신라 의상스님의 제자인 삼법스님
이 당나라에서 귀국하기전 '육조혜능
의 정상을 모셔다 삼신산의 눈썹인
계곡 위 꽃이 피는 곳에 봉안하라'는
꿈을 꾸고 육조의 머리를 취한 뒤 귀
국하였다. 한라산 금강산 등을 두루
찾다가 지금의 생계사 육조정삼탑전
(일명 금당, 경남도
유형문화재 제125
호)자리에 육천사를
짓고 혜능스님의 머
리를 경장했다.

조계종 13교구본
사 생계사(주지 철
형)는 4일 오전11시
육조 혜능스님 1284
주기를 맞아 바로 이 금당에서 그동
안 3월불사때 육조봉찬회주관으로 탄
신제에 맞춰올린 다례식과 함께 기일
에 다례식을 갖기로했다. 선종의 소의
경전인 <육조단경>을 살한 육조혜능
스님의 기제사가 2백여년만에 다시
봉행되는 것이다.

은혜사 보살계 수계법회
'보살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
가난함을 구제하는 보배이며 병든 자
를 치료하는 좋은 의사가 된다.'
부처님은 보살계의 중요성을 이처럼
가르치며 '중생이 보살계를 받으면 바
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'고도 했다.
대구 은혜사(주지 법타)는 10~11일 보
살계 수계대법회를 마련한다. 계사(戒
師)는 일타 前 조계종 전계대회장이며
동참금은 2만원. (0563)35-3318

교수 21명 불교문화 강좌

동국대(총장 송석구) 사회교육원은
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불교박물
관대학(학장 문명대교수)을 개설한다.
봄·가을 학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
박물관 강좌는 '한국의 불탑' '한국
의 사원건축' '중국의 불교조각' '경
주남산의 미술' 등에 대해 정병조 권

기종 이기동(이상 동국대)교수 등 21
명의 권위있는 교수들이 강의를 맡게
된다.
우리나라 불교문화의 핵심을 정확
히 짚어줄 이번 강좌는 아름다운 유
적과 유물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사
상과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
될 것이다. (02)260-3728

해국스님 '반야심경' 강설
<대반야경> 6백권의 사상을 한자
260자로 짧게 요약하여 그 진수만을
담고 있는 경전인 <반야심경>.
충북불교문화원(원장 송태석)은 9
일부터 11일까지 해국스님(제주 남극
선원장, 총주 석종선원장)을 초청해
본원에서 반야심경대법회를 봉행한다.
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
될 이번 법회는 <반야심경>의 핵심사

상인 공(空)사상과 경전해설 등을 법
문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이번 법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
실체가 없는 공임을 터득할 수 있는
반야(지혜)를 얻게되는 계기를 마련
해줄 것이다. (0431)221-6544

노인들끼리 사랑나눔 바자회

생활품도 장만하고 이웃도 도움 수
있는 일석이조의 기회, 사회복지법인
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삼전종합사회복
지관(관장 보각)에서는 무의탁 노인
들을 돕기 위한 '사랑나눔바자회'를
개최한다.

이번 바자회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
천할 수 있는 좋은 자리. 바자회는
9·10일 양일간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
서 열리며, 5일까지 물품을 후원할 개
인이나 단체를 모집한다. (02)421-6077

유식사상·화엄경 등 강의

불교교리의 종교학적 해석이나 지
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탈피 부처님께
하심도의 요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
하도록 돕는 강좌가 있다.

우리는선우(공통대표 남지심)는 9
월8일부터 12월29일까지 선우교실에서
2학기강좌를 실
시한다.

도법(선우도량 상
임대표) 본각(중앙
승가대교수)스님,
윤원철(서울대 총
교학과) 박성배(동
국대)교수 등의 강
사진이 진행할 이
번 강좌는 △종단·유식사상 △화엄
경 심지품 △불교의 체용사상 △불교
와 건강 등 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
9시까지. (02)278-8672

차시·음악이 있는 한마당

은은한 차향 속에서 시낭송회, 다도
강연, 소리공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
하루차집이 마련된다. '우리차와 불자
의 만남'이라는 주제로 대한불교청년
회부산지구(회장 이건국)는 21일 서
면 휴다원(하나방)에서 우리 차에 대
한 이해를 돕고 차를 통한 불자들의
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
을 마련한다. 다도강연, 어울림의 노
래공양, 가야금 대금 등의 국악공연,
동참한 불자들의 즉석 노래자랑, 장기
자랑 등 불교발전을 위한 한마음의
자리로 꾸며지게 된다. (051)645-7871

신행수첩

나의 수행일기



조서익

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
닐 때만 해도 가난했던 시
절이라 구호물자나 좋은 선
물을 탈 생각으로 이웃 친
구들과 함께 신학교회에 많
이 나갔다. 어떤 생각이나
종교관이 있어서가 아니라
어린 마음에 새로운 물건을
갖고 싶은 철부지 생각에서
였다.
그러던 나에게 불법을 접
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
것은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
생활을 하며, 형님과 형님
친구부와 셋이서 동업한 사
업이 완전(?) 실패로 끝
나면서 부터다.
그때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 초.
우리는 농기구 제작회사를 차렸다. 정부가 농
촌의 근대화 운동을 벌이던 때라 전망이 밝을
것이란 생각에서였다. 그러나 형님과 친구분
은 그 사업에
대한 기조지
적인 전문
성이 결여되
었고, 나는
직장에 매인
품인데다 학교만 다녔지
사회와 사업에 전혀 아는
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사
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
어지고 있었다. 철저한 준
비와 계획없이 별다른 놓
았던 사업, 결과는 불을
보듯 뻔한 일이었다. 2년
여동안 어렵사리 꾸려 갔
지만 파산하고 말았다. 순
간 눈앞이 캄캄해졌다. 가
족들 볼 면목이 없어 상당
기간 친구를 집을 전전하
면서 살았다. 이 사실을 아신 아버님은 나를
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. "(고왕경)을
펜
글씨로 사경하고 그 유래까지 생각하며 열심
히 독송하면 죽을 죄인도 방면하여 살아 풀려
나오게 되며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뀌
어 진다고 하니, 모든 것 다 잊고 열심히 지송
하라"고 당부하셨다.
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<고왕경>을 읽어 나
갔다. 50독을 하고 겨우 외울 수 있게되면서
아침 점심 저녁 각각 세차례씩 소리내어 독송
했다. 차츰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듯 무뎠던 팔주교
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근무지를 옮겼다. <고
왕경> 독송은 그뒤에도 계속되었다. 아침 기상

전이나 법무부에 교육가서
합숙할 때도 남들의 시선엔
어랑감 하지않고 소리내어
열심히 독송했다.
<고왕경> 독송이 몸에 익
어 생활화가 되어갈 즈음
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났
다. 법무부 행정 감사반이
불시에 교도소로 파견되어
장부를 감사하여 임명감사
를 시작했다. 당시 나는 자
원교육중이었다. 원래 내가
교육관 순서가 아닌데 교육
발령자가 인가려고 빠질래
고 동료 대신 자원교육됐던
것이다. 여러 사람이 지적
당해 시달서를 쓰고 어떤 직원은 파면당하고
징계받고 아파있었다. 그러나 나의 장부는 감
사받지 않고 통과되었다. 감사반이 모든 장부
를 다 볼 수 없어 중요한 것만 선별해 검열한
것이다. 갑자기 교육받으러 간 상황이라 장부
정리도 제
대로 못해 검
열만 하면
나역시 시달
서나 징계감
사되었다.
소를 뒤흔든 감사는 무사
히 끝났다. 나는 부처님께
감사했다. 불법을 믿고 행
하면 항상 부처님의 가피
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더
욱 확고해 졌다.
어느덧 교도 행정의 일
선에서 일한지 30여년이
가까워 온다. 어려운 일도
많았지만 수없이 많은 재
소자들과 만나면서 부처님
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진
심으로 대화할 때 나는 내
직업에 고마움을 느낀다. 다른 사람을 교정하
다는 것. 이것은 자기 자신부터 수행하지 않으
면 결코 하기 힘든 일이다. 시간 날때마다 나
는 시를 습작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. 또
불교에 관한 시도 지어보고 재소자들을 위한
글도 써서 교도소 소식지에 연재도 하며 문자
공양에 정열을 다 기울인다. 내가 쓰는 한문장
이라도 재소자들이 경생의 삶을 살아가는데
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
다.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는 계속 경전을 공
부하며 거기서 느낀 감동을 글로 옮길 생각이
다.
<청송제2교도소 교무과장>



소를 뒤흔든 감사는 무사
히 끝났다. 나는 부처님께
감사했다. 불법을 믿고 행
하면 항상 부처님의 가피
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더
욱 확고해 졌다.
어느덧 교도 행정의 일
선에서 일한지 30여년이
가까워 온다. 어려운 일도
많았지만 수없이 많은 재
소자들과 만나면서 부처님
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진
심으로 대화할 때 나는 내
직업에 고마움을 느낀다. 다른 사람을 교정하
다는 것. 이것은 자기 자신부터 수행하지 않으
면 결코 하기 힘든 일이다. 시간 날때마다 나
는 시를 습작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. 또
불교에 관한 시도 지어보고 재소자들을 위한
글도 써서 교도소 소식지에 연재도 하며 문자
공양에 정열을 다 기울인다. 내가 쓰는 한문장
이라도 재소자들이 경생의 삶을 살아가는데
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
다.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는 계속 경전을 공
부하며 거기서 느낀 감동을 글로 옮길 생각이
다.
<청송제2교도소 교무과장>

주머니 속에 넣고 떠나는 나의 작은 책!

책은 나의 발견자, 삶의 동반자!

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
<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>은 시리즈 이룹니다.



1 새벽 삭발 석성수 스님
사인·패게사 주지
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해 온 석성수 스님의 마음자리 담히는 노력!
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
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해준다.



2 선 석치현 스님
사인
선(禪)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. 가능하면 이 책과 함께
매일매일 좌선의 자세로 앉아 보라. 그대의 의식은 비로소
그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될 것이다.



3 인연 석창주
사인
서정적 생명력이 있는 미담 서정주의 시와 산문들!
그의 시와 글 곳곳에 박혀 있는 산시의 향수.
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추억과 마음의 고향을 되찾게 해준다.



4 한국의 차詩 김삼현
동국대학교수
초의선사를 비롯하여 유명 다인들의 다시를 엮은 책.
한 잔의 차로써 다선일미(茶禪一味)의 맛과 세계를 감상한다.
그들의 삶을 통해 한결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가질 것이다.



5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최인호
소설가
금세기 우리 문단의 최고의 작가 최인호!
경희의 세 계자 수월·해월·만공의 '잠나'를 찾아가는 과정을
최인호 특유의 독특한 문체로 그린 소설!



6 곱춰처럼 살고 싶다 윤명렬
소설가
한국소설대학에서 작가 지망생을 지도하고 있는 윤명렬 불교산문집.
봄의 들길에서 출발하여 가을 황량한 바닷가까지의 여정을
살살하지만 아름답게 보여준다.



7 불교문학의 이해 홍기삼
문학평론가
문학평론가 홍기삼!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통하여
감동과 비평의 언어로써 새로운 인간학을 지향한다.



8 사천강단(四川講壇) 민영규
연세대학교수
어느 노학자의 선불교 탐방! 최보다 강한 것은, 무엇인가가
미생전(未生前), 우리를 그렇게 매이 놓은 것이리니
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.

만족사는 외형만 크고 내용은 빈약한 함박미달의 책 대신에
독자들에게 실속 있는 독서풍토를 만들고자
<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> 총서를 간행하여
지식의 대중화, 불교문화의 대중화를
모색하고자 합니다.
민족사
전화 (02)732-2403~4
팩스 (02)739-7565